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 Vol. 24, No. 3, 599-614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김 무 경　　오 윤 희†　　오 강 섭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여부 및 더 나아가 이같은 패턴이 임상과 비임상 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M.I.N.I.-Plus를 통하여 진단된 사회 공포증 환자 34명(남 18명, 여 16명)과 정상 성인 집단 91명(남 45명, 여 4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와 부모 양육 행동 척도 및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ADS II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돌봄, 과보호, 학대, 방치 영역을 회고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비록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공포증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의 방치,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인자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사회 불안과 관련해 기존에 강조되어져왔던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여줄 뿐만 아니라, 부의 방치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부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결과라 하겠다.

주요어 : 부모 양육 행동, 사회 불안, 성차, 부의 방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 윤 희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실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
FAX : 02-2001-2211 / E-mail : psyoh@chollian.net

사회 공포증(또는 사회불안 장애)은 개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주는 장애이며, 평생 유병율 또한 다른 장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병인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Neal & Edelmann, 2003).

사회 공포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 공포증은 유전적 요소를 포함한 개인의 행동 억제 기질(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érot, Friedman, Snidman, Kagan, & Faraone, 2001; Kagan, Reznick, & Snidman, 1987), 부모 양육 행동을 포함한 가족 환경(Bruch, 1989; Rapee, 1997), 외상적 경험(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 또래관계(Beidel, Turner, & Morris, 1999), 그리고, 사회인지 과정(Chorpita & Barlow, 1998; 이복동 오윤희 오강섭, 인쇄중) 등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현 혹은 유지 및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부모 양육 행동은 사회 불안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사회 공포증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행동에는 부모의 비사회성, 부정적 평가, 과보호와 정서적 보살핌의 부족, 거부, 그리고 학대 등의 특성들이 있다. 즉, 사회 공포증을 가진 성인들의 경우 그들의 부모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만들었으며, 사회성을 덜 중요시 여기게 하였던 것으로 보고하였다(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또한 그들은 부모들이 긍정적 평가는 없이 부정적인 평가만을 주어 수치심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하게끔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Alessandri & Lewin, 1993),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벌을 받거나, 혹 만족시켰다 할 지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발달시키기 쉬우며, 이것은 지속적인 거부, 또는 예상되는 거부로 이어져 승인 추구 행동 보다는 불승인 회피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Arkin, Lake, & Baumgardner, 1986). 이에 더하여 부모 모두가 거부적이고(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man, 1983), 정서적 보살핌은 부족한 가운데에 과보호적이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으며 (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man, 1983; Parker, 1979),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 학대를 보고하였다는 연구들 또한 있다(Alden, & Cappe, 1988; Stein, Chartier, Hazen, Kozak, Tancer, Lander, Furer, Chubaty, & Walker, 1998).

이와 같이 사회 공포증의 병인론적 관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모 양육 행동이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 행동을 돌봄과 과보호 영역에 제한하여, 거부나 학대와 같은 부모 양육 행동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 (Harris & Brown, 1996).

한편, 부모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Gerlsma, Emmelkamp, & Arrindell, 1990; Rapee & Melville, 1997), 실제로 사회 공포증의 발현 및 유지에 부모 양육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비록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 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허유정(2002)에 따르면, 모의 수용-거부 양육 행동을 포함한 행동 억제 기질과 창피 경험이 사회 공포증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드러난 반면, 오경자와 양

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지되지 못한 채 행동 억제 기질과 외상 경험만이 사회 불안의 지속에 유의미한 예측인자로 밝혀져, 사회 공포증의 발현에 대한 부모 양육 행동의 영향력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 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치료 연구에서 인지치료에 추가적으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인지치료만 단독으로 제시한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Nauta, Scholing, Emmelkamp, & Minderaa, 2003).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 선행 연구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우선은 이들 연구들이 다양한 부모 양육 행동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Chambers, Power, & Durham, 2004). 즉, 불안장애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최근 들어 성차와 관련하여 불안장애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공병율, 증상 발현에서의 특징, 그리고 심각도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Bekker, 1996; Castle, Deale, & Marks, 1995; Oei, Wanstall, & Evans,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포증의 발현에 있어서의 성차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Turk, Heimberg, Orsillo, & Holt, 1998).

일부 사회적 불안과 관련하여 성차를 다룬 연구를 보면, 아동기의 수줍음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지를 종단적으로 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Caspi, Elder와 Bem(1988)에 따르면, 수줍은 여아들의 경우 이후에 또래보다도 전통적인 결혼 생활에 더 잘 순응하고 중년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수줍은 남아들은 그들의 동년배들에 비하여 늦게 결혼하고, 늦게 부모가 되고, 직업적으로도 덜 성공하며, 부부관계에서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rr, Lambert와 Bem(1996)은 Caspi 등(1988)이 보고한 결과가 스웨덴과 같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수줍음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문화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직업적 성공에 수줍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아동기의 수줍음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는 명백히 성차가 존재하며, 이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규범에 의하여 중재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에 사회 공포증 환자에게 있어 행동 억제와 부모의 양육 행동 그리고 사회적 회피 및 불안정도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며, 여성의 경우에는 행동 억제가 심할수록 부의 돌봄이 높고 사회적 불안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그와 상반되게 행동 억제가 높을수록 부의 돌봄이 적고 사회적 불안 정도가 높아 부의 양육 행동이 행동 억제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오윤희, 2004).

즉,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사회 공포증의 발달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Bruch와 Cheek(1995)가 밝혔듯이 수줍음은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줍은 소년들은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갈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는 듯 하다. 실제

로 부모 중 특히 아버지는 수줍은 행동과 또래간의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딸보다도 아들에게 있어서 더욱 문제시 삼는 것으로 보여진다(Bacon & Ashmore, 1985).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모의 역할을 강조한 데에 반하여 최근 들어 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모와의 애착보다도 부와의 애착의 질이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에 대해 더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있다(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Verschueren & Marcoen, 1999).

사회 공포증과 관련한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임상과 비임상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나타난 차이를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공포증에 영향을 준다고 보거나, 임상 집단은 포함하지 않은 체 비임상 집단만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공포증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 지나치게 돌봄과 과보호 등 특정 영역에만 치중하여 학대나 방치 등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부모 양육 행동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모의 양육 행동을 주로 강조해 오며 부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고, 넷째, 특정 양육 행동, 예를 들면 학대나 방치와 같은 양육 행동에 있어서는 이들이 사회 공포증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성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과 과보호 뿐만 아니라 방치와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둘째, 이들 각각의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 셋째, 더 나아가 이같은 패턴이 임상과 비임상 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외래에 2002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M.I.N.I.-Plus(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유상우, 2001)를 통해 사회 공포증으로 진단된 외래 환자 34명과 정상 성인 집단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 공포증 집단과 정상 성인 집단 및 성별에 따라 연령 및 교육연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 연한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 성인 집단과 사회 공포증 집단 모두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25,1)=5.91$, $p<.05$. 또한 성별 및 결혼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를 카이자승검증(χ^2)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남녀 성비에 있어서도 집단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 공포증 (n=34)		정상 통제 (n=91)		전체 집단 (n=125)	
		남	녀	남	녀	남	녀
인원(명)		18(53%)	16(47%)	45(49%)	46(51%)	63(50%)	62(50%)
연령(세)		32(10.74)	31(8.46)	34(7.70)	29(7.92)	34(7.70)	30(7.93)
교육연한(년)		15(2.43)	14(1.69)	16(2.19)	15(2.38)	16(2.19)	15(2.38)
결혼	기혼(명)	9(50%)	9(56%)	29(64%)	20(43%)	38(57%)	29(43%)
	미혼(명)	9(50%)	7(44%)	16(36%)	26(57%)	25(43%)	33(57%)

평균(표준편차/퍼센트)

연구도구

M.I.N.I.-Plus(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사회 공포증 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M.I.N.I.-Plus(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Sheehan, Lecrubier, Janavs, Weiller, Keskiner, Schinka, Knapp과 Dunbar(1997)에 의하여 개발된 구조화된 진단 면접 도구인 M.I.N.I.를 보다 연구용으로 적합하게 편집한 것이다. 국내에서 정신과 의사 및 임상 심리학자들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대학 병원 및 정신과 병원에서 270명의 자료를 수집해 표준화한 연구 결과, 사회 공포증 환자 진단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1로 보고되었다(유상우, 2001).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III(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III: SADS III)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공포증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III(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III: SADS III)를 사용하였다. 이는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조용래 등(1998)이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사회적 불안감과 사회적 회피 행동의 두 가지 하위척도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고 채점하고자 사회적 불안감의 경우 그 강도를, 회피 행동에 대해서는 빈도를 측정하도록 지시문의 일부를 바꾼 SADS II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 공포증 환자 집단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6이었다.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돌봄과 과보호는 Parker(1979)가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Gamsa(1987)가 개정하고, 이를 표준화(송지영, 1992)한 한국판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 Instrument: PBI)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의 돌봄 항목의 내적 일치도는 .79, 모의 돌봄 항목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부의 과보호 항목의 내적 일치도는 .42, 모의 과보호 항목의 내적 일치도는 .86이었다. 다음으로

학대와 방치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 행동 척도들에서 추정하는 요인들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을 첨가하여 각 요인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43개의 문항을 추출 및 제작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의 학대의 내적 일치도는 .79, 모의 학대의 내적 일치도는 .87이었으며, 부의 방치의 내적 일치도는 .69, 모의 방치의 내적 일치도는 .85이었다.

통계적 분석 방안

인구 통계학적 분석 결과, 남녀에 따라 교육연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연한이 실제 사회 공포증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하여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연한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r(125)=-.18$, $p<.05$, 교육연한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124)=4.42$, $p<.05$.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후 차이 및 상관 분석에서 교육연한을 공변량을 하여 중다공변량 분석과 부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하여 범주 변인의 경우 효과코딩(effect coding)을 했고,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때 발생하기 쉬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 각 예언 변인 별로 센터링(centering)을 시킨 후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 및 성별과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먼저 집단과 성별과 교육수준 변인을 block으로 투입하여 이들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2단계에서는 8가지 양육 행동, 3단계에서는 집단과 개별 양육 행동과의 상호작용 변인(집단×양육행동), 4단계에서는 성별과 개별 양육 행동과의 상호작용 변인(성별×양육행동), 5단계에서는 집단과 성별과 개별 양육 행동과의 상호작용 변인(집단×성별×양육행동)을 투입하였다. 결과 분석 시 각 단계 변화에서 새로 투입된 변인의 R^2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변인의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예측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집단 및 성별에 따른 사회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간의 집단간 차이를 교육연한을 공변인으로 하여 중다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나, $F(125,1)=71.09$, $p<.001$. 사회 공포증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서도 부의 방치, 부의 돌봄, 부의 과보호, 모의 돌봄에서 사회 공포증 집단과 정상성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F(125,1)=4.51$, $p<.01$; $F(125,1)=12.94$, $p<.001$; $F(125,1)=6.60$, $p<.01$; $F(125,1)=7.32$, $p<.001$. 그러나 성별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비교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집단 비교

	사회공포증 (n=34)	정상성인 (n=91)	F
사회적 회피/불안	88.47(18.22)	61.92(13.92)	71.09***
부에 대한 평가			
학대	9.32(3.95)	8.98(3.29)	.09
방치	10.47(2.71)	9.11(2.86)	4.51**
돌봄	18.58(3.95)	21.37(3.79)	12.94***
과보호	17.59(5.53)	14.33(5.77)	6.60**
모에 대한 평가			
학대	8.53(2.58)	9.09(5.47)	.33
방치	9.24(2.75)	8.49(4.69)	.47
돌봄	20.88(3.89)	23.00(3.56)	7.32***
과보호	17.08(4.76)	15.14(6.14)	2.05

평균(표준편차)

** p<.01. *** p<.001.

표 3.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성별 비교

	남성 (n=63)	여성 (n=62)	F
사회적 회피/불안	69.95(19.77)	68.32(18.79)	1.09
부에 대한 평가			
학대	9.16(3.12)	9.00(3.82)	.36
방치	9.25(2.66)	9.71(3.09)	.13
돌봄	21.19(3.85)	20.03(4.13)	2.57
과보호	15.25(5.89)	15.18(5.89)	.42
모에 대한 평가			
학대	9.13(6.18)	8.76(3.02)	.18
방치	8.97(5.14)	8.42(3.14)	1.19
돌봄	22.65(3.65)	22.19(3.88)	.12
과보호	15.75(6.09)	15.59(5.63)	.38

평균(표준편차)

집단 및 성별에 따른 사회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간의 관련성

임상과 비임상 집단 및 남녀에 따라 교육연한을 통제한 후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간의 부분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정상 성인 집단의 경우 남녀에 따라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남성 정상 성인 집단은 부모의 돌봄과 더불어 부의 방치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에 반하여, $r(45)=-.35$, $p<.05$; $r(45)=-.31$, $p<.05$; $r(45)=.32$, $p<.05$, 여성의 경우에는 부의 양육 행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모의 학대와 과보호에 한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46)=.44$, $p<.01$; $r(46)=.35$, $p<.05$. 사회 공포증 집단의 경우 아예 여성 사회 공포증 집단에게

표 4. 남/녀 정상 성인 집단의 사회적 회피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들 간의 부분 상관 분석 (교육연한 통제)

	1.	2.	3.	4.	5.	6.	7.	8.	9.	M(SD)
1. 사회적 회피불안		.13	.14	-.29	.24	**.44****	.07	-.26	**.35***	62.13 (14.16)
2. 부의 학대	-.02		.45**	-.33*	.45**	.49**	.46**	-.24	.29*	8.89 (3.71)
3. 부의 방치	**.32***	.36*		-.59**	.48**	.43**	.65***	-.55**	.45**	9.17 (3.06)
4. 부의 돌봄	**-.35***	-.38*	-.73***		-.18	-.39**	-.33*	.47**	-.16	21.02 (3.70)
5. 부의 과보호	.25	.33*	.09	-.04		.42**	-.46**	-.17	.86***	14.41 (5.99)
6. 모의 학대	.11	.59***	.18	-.19	.11		.14	-.34*	.46**	8.72 (3.07)
7. 모의 방치	.24	.53***	.33*	-.25	.12	.91**		-.64***	.34*	8.04 (3.06)
8. 모의 돌봄	**-.31***	-.49**	-.39**	.39**	-.16	-.75**	-.82***		-.19	23.02 (3.41)
9. 모의 과보호	.23	.12	.16	-.19	.72***	.04	-.03	-.07		15.26 (6.03)
M(SD)	61.71 (13.84)	9.09 (2.84)	9.04 (2.69)	21.73 (3.89)	14.24 (5.60)	9.49 (7.16)	8.96 (5.93)	22.98 (3.75)	15.02 (6.32)	

주. 대각선 아래는 남성, 대각선 위는 여성
* $p<.05$. ** $p<.01$. *** $p<.001$.

표 5. 남/녀 사회 공포증 환자의 사회적 회피 불안 정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들 간의 부분 상관 분석 (교육연한 통제)

	1.	2.	3.	4.	5.	6.	7.	8.	9.	M(SD)
1. 사회적 회피/불안		-.20	-.04	-.22	-.18	-.34	-.32	-.13	.09	86.13 (19.47)
2. 부의 학대	.39		.44	-.22	.59*	.76**	.46	-.39	.45	9.31 (4.22)
3. 부의 방치	**.68****	.14		-.71**	.42	.25	.52*	-.26	.05	11.25 (2.69)
4. 부의 돌봄	**-.50***	-.35	-.42		-.34	-.02	-.18	.47	.23	17.19 (4.09)
5. 부의 과보호	.29	.34	.09	-.51*		.48	.49	-.24	.25	17.38 (5.11)
6. 모의 학대	.19	.77***	.17	-.28	.25		.56*	-.41	.25	8.88 (2.94)
7. 모의 방치	.45	-.06	.89***	-.39	.12	.06		-.56*	.37	9.50 (3.22)
8. 모의 돌봄	-.30	-.26	-.40	.65**	-.19	-.45	-.32		-.13	19.81 (4.28)
9. 모의 과보호	.47	.18	.29	-.42*	.73**	.21	.27	-.28		16.56 (4.30)
M(SD)	90.56 (17.32)	9.33 (3.81)	9.77 (2.60)	19.83 (3.47)	17.77 (6.02)	8.22 (2.26)	9.00 (2.33)	21.83 (3.35)	17.55 (5.22)	

주. 대각선 아래는 남성, 대각선 위는 여성
* $p<.05$. ** $p<.01$. *** $p<.001$.

서는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남성 사회 공포증 집단의 경우 남성 정상 성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의 방치와 돌봄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데에 반하여 모의 돌봄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r(18)=.68$, $p<.01$; $r(18)=-.50$, $p<.05$; $r(18)=-.30$, *ns*. 즉, 상관 분석 결과 집단 및 성별에 따른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각 양육 행동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

표 6. 양육 행동에 따른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양육 행동	단계	예측변인	*Beta*	R^2	ΔR^2	*F*
부에 대한 평가						
방치	1	교육연한	-.11	.39	.39	26.08 ***
		집단	-.59***			
		성별	.05			
	2	부의 방치	.19**	.43	.03	22.33 ***
돌봄	1	교육연한	-.11	.39	.39	26.08 ***
		집단	-.59***			
		성별	.05			
	2	부의 돌봄	-.27***	.46	.06	25.21 ***
과보호	1	교육연한	-.11	.39	.39	26.08 ***
		집단	-.59***			
		성별	.05			
	2	부의 과보호	.16*	.42	.02	21.28 ***
모에 대한 평가						
돌봄	1	교육연한	-.11	.39	.39	26.08 ***
		집단	-.59***			
		성별	.05			
	2	모의 돌봄	-.24**	.45	.05	24.04 ***
과보호	1	교육연한	-.11	.39	.39	26.08 ***
		집단	-.59***			
		성별	.05			
	2	모의 과보호	.24**	.45	.06	24.23 ***

* p<.05. ** p<.01. *** p<.001.

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첫째, 돌봄과 과보호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F(3, 124)=25.21, p<.001; F(3, 124)=24.04, p<.001. 둘째, 학대와 방치의 경우, 학대는 부모 모두에게 있어 유의미한 예측인자가 아님이 드러난 반면, 방치의 경우에는 부에 한하여서만 사회적 회피 및 불안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F(3, 124)=22.33, p<.001.

한편, 위계적 회귀 분석 시 3-5 단계에 걸쳐 살펴본, 성별과 양육 행동과의 상호작용 효과, 성별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 성별과 집단과 양육 행동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떠한 양육 행동에서도 성별에 따라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공포증의 증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임상과 비임상 집단에 따라 다른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지 못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과 과보호 뿐만 아니라 방치와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같은 패턴이 임상과 비임상 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보고자 하였다.

비록 차이 검증 결과 임상과 비임상 집단에 따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의 과보호와 방치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고, 상관 분석 결과 부모 양육 행동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간의 관련성에 있어 임상 집단과 비임상 집단 및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를 실제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부모 양육 행동 중 부의 방치,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자인 것은 확인 되었으나, 부모 양육 행동들 각각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집단과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의 임상 및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여전히 사회 불안 증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침을 경험적으로 입증 해 주었으며(Parker, 1979; Rapee, 1997), 기존에 거의 다루지 않아왔던 방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부정적 양육 행동 또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입증해줌과 동시에 부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양육 행동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정상 집단과는 구별되게 사회 공포증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있다기 보다는 발달적 맥락에 있어서 그 정도나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사회 공포증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분모적인 부모 양육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기대된 성역할과 관련하여 여성 사회 공포증 환자와는 다르게 남성 사회 공포증 환자의 경우 어린 시절 부로부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 학대를 당하였을 가능성은 지지되지 못하였으나(Bacon 등, 1985),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 행동 뿐만 아니라 방치와 같은 양육 행동 또한 사회 공포증의 병인론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특히, 모의 방치는 유의미한 예측인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반하여 부의 방치가 사회 공포증의 실제적인 증상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자로 밝혀진 것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모의 양육 행동만을 강조해 온 것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로 생각되며, 오히려 부와의 애착의 질이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에 대해 더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Verschueren & Marcoen,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사회 공포증의 발현 및 유지와 관련된 연구가 지나치게 모의 양육 행동을 강조해 온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는 부의 양육 행동 또한 모의 양육 행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시사해 주었고, 이는 병인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로 모의 양육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오던 것과 관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임상과 비임상 집단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집단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 공포증의 실제 증상에 부모 양육 행동이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셋째, 사회 공포증의 병인론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 영역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온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치 행동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방치의 경우, 사회 공포증의 발현에 있어 주요한 예측인자임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 행동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을 비교하고, 이것이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공포증의 증상에 대한 부모 양육의 영향력에 있어 특정 양육 행동에 있어서는 집단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시사되는 바, 앞으로도 더 많은 피험자를 포함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부모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회고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나 Rapee(1997)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성인 피험자들이 더 이상 부모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회고적 평가로 인한 기억의 정확성과 관련한 문제가 그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Neal 등, 2003). 이와 더불어, 정상 성인 집단에 비하여 전체 사회 공포증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전향적 종단 연구를 통해 충분한 수의 아동 및 청소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성차에 따른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은 경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병인론적 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보다 많은 피험자 및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부모의 양육 행동이 단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만 하는 일방향적 행위가 아님을 지각하고, 반드시 자녀의 성별, 자녀의 행동 억제 특성(behavioral inhibition)과 같은 기질적 특성, 그리고 부모의 성별 및 특성과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국내 임상 피험자를 포함하고, 성차, 부모 양육 행동, 환자의 기질적 특성, 외상적 경험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국내의 문화적 특성에 적절한 사회 공포증의 병

인론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예방 및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 학회지, 979-990.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오윤희. (2004). 성차에 따른 행동 억제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131.

유상우 (2001). 불안장애의 최신지견과 M.I.N.I. 소개, GSK Satellite Symposium 자료집, 제주도 롯데호텔

이복동, 오윤희, 오강섭 (인쇄중). 사회공포증 환자에 있어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사회적 불편감 및 회피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 행동 치료.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허유정 (2002).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Alden, L., & Cappe, R. (1988). Characteristics predicting social functioning and treatment response in clients impaired by extreme shyness: Age of onset and the public/private shyness distinc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0*, 40-49.

Alessandri, S. M., & Lewin, M. (1993). Parental evaluation and its relation to shame and pride in young children. *Sex Roles, 29*, 335-343.

Arkin, R. M., Lake, E. A., & Baumgardner, A. H. (1986). *Shyness and self-presentation.* New York: Plenum Press.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Monsma, A., & Bri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a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Bacon, M. K., & Ashmore, R. D. (1985). How mothers and fathers categorize description of social behavior attributed to daughters and sons. *Social Cognition, 3,* 193-217.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9).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643-650.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é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1679.

Bekker, M. H. J. (1996). Agoraphobia and gender: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129-146.

Bruch, M. A. (1989). Familial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social phobia: Issues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7-39.

Bruch, M. A., & Cheek, J. M. (1995). *Developmental fact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shyness.* New York: Guilford Press.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1), 57-65.

Caspi, A., Elder, G. H., Jr., & Bem, D. J.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4-831.

Castle, D. J., Deale, A., & Marks, I. M. (1995). Gender differences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 114-117.

Chambers, J. A., Power, K. G., & Durham, R. C. (2004). Parental styles and long-term outcome following treatment for anxie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1,* 187-198.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Harris, T. O., & Brown, G. W. (1996). Social causes of depression.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9,* 3-10.

Gerlsma, C., Emmelkamp, P. M. G., & Arrindell, W. A. (1990). Anxiety,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early parenting: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251-277.

Jones, W. H., & Briggs, S. R. (1984). *The self-other discrepancy in social shyness.* Amsterdam: North Holland.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Kerr, M., Lambert, W. W., & Bem, D. J. (1996). Life course sequelae of childhood shyness in Swede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100-1105.

Nauta, M. H., Scholing, A., Emmelkamp, P. M. G., & Minderaa, R. B. (2003).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in a clinical setting: No additional effect of a cognitive parent training.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2,* 1270-1278.

Neal, J. A., & Edelman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61-786.

Oei, T. P. S., Wanstall, K., & Evans, L. (1990). Sex differences in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 4,* 317-324.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 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1), 47-67.

Rapee, R. M., & Melville, M. F. (1997). Recall of family factor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comparison of mother and offspring reports. *Depression and anxiety, 5,* 7-11.

Stein, M. B., Chartier, M. J., Hazen, A. L., Kozak, M., Tancer, M. E., Lander, S., Furer, P., Chubaty, D., & Walker, J. (1998). A family study of generalized social phobia.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55,* 90-97.

Stem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An 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526-531.

Turk, C. L., Heimberg, R. G., Orsillo, S. M., & Holt, C. S. (1998).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3), 209-223.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 183-201.

Wast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547.

원고접수일 : 2004. 9. 24
게재결정일 : 2005. 7. 25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 Vol. 24, No. 3, 599-614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on Social Anxiety Symptoms

Mu Kyung Kim Youn Hee Oh KangSeob Oh
Kangbuk Samsung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on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nd also find out whether there is gender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on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nd examine whether there is gender and group(normals and social phobics group)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on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4 clinical participants with social phobia(18 male, 16 female) who were identified structured interview, M.I.N.I.-Plus, and 91 non-clinical participants(45 male, 46 female). Questionnaires included the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PBI, parent rearing behavior scal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SADS III). The results indicated that even though there was no signigicant gender×group interaction on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on social anxiety symptoms, but paternal neglect, parental(paternal/maternal) over-protection and ca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symptoms. It was not only reproved the effects of parental(paternal/maternal) over-protection and care on social anxiety symptoms, but also suggested paternal rearing behaviors, paternal neglect, seem to be important as much as maternal behaviors in the etiological perspective in social phobia.

Keywords : parental rearing, social anxiety, gender differences, paternal neglect